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곡우에 비가 오면 백곡이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이 무렵 내리는 비는 하늘이 땅에 보내는 다정한 손길이자, 생명의 씨앗을 틔우게 하는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농부들은 이 비를 맞으며 일 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대지는 부지런히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봄 농촌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은 어김없이 생명의 비를 내려주었지만, 정작 이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손에는 씨앗을 뿌릴 비료가, 기계를 돌릴 면세

유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원자재 수급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토양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장은 절박한데, 정부의 인식은 너무나 한가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7월까지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안심의 담보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료를 사러 가도 ‘1인당 2포 구매 제한’이라는 팻말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고, 필

수 농자재 가격은 이미 30~40% 이상 폭등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공급 절벽’과 ‘부르는 게 값’인 현실 앞에서, 농민들은 울 한 해 농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깊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지 산업의 하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농민의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땅에서 우리의 식탁은 결코 안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는 결국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적 ‘생존과 안보’를

흔드는 근본적인 위기로 이어집니다. 즉, 농민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위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묵도하고도 정부의 대응은 사태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보다 생색 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농기계에만 국한된 유가 보조금이나 임시방편적인 가격 보조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휘발유 농기계를 사용하여

신용하는 대다수 영세 농가의

료 보급을 확대하고, 창조세계의 순리를 따르는 친환경 농업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의 정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립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현장의 고통을 헤아리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생산비가 농산물 가격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민들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밭을 성취하라”(갈

### 중동발 정세와 농자재 수급

라디아서 6:2)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농촌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정부가 책임 있게 나누어 지도록 촉구하고, 우리 사회 또한 농촌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곡우의 비가 모든 곡식을 적시듯, 우리 사회의 배려와 정책적 지혜가 농촌의 그늘진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료 한 포대, 기름 한 방울의 부족함 없이 울 한 해 농사가 풍성하게 이어져, 가을에는 모든 이들이 감사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땀질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자재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필수 농자재의 최소 비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원자재를 최소 3개월 이상 비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둘째, 농업 생산 구조의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무기질 비료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기질 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연구소 이사장  
· 회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신 15: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러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떼제하라.”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노크리’인데, 이는 무역업자와 같이 장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비(非)이스라엘인을 가리킨다. 이 이방인에게 꾸어준 빚은 독촉해도 되고 그들이 갚지 못하면 종으로 부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어준 빚은 탕감해야 한다.

신 15:4-6, “4-5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을 풀지 말라 곧 이르기까지 일곱째 해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고품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제7년 안식년이 가까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고품하게 되어 뜬이나 양식을 꾸러왔을 때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가난한 사람에게 뜬이나 양식을 꾸어주면, 머지않아 안식년이 올 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아예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사고

### 부채 탕감의 복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식년 빚 탕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문제는 바로 빈곤, 외채, 외세의 문제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빈곤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였고.” 외채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외세 문제가 해결된다. 빈곤, 외채, 외세 이 세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도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안식년 빚 탕감을 비롯한 회년 원리를 실천하면 빈곤, 외채, 외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방식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너에게 꾸어주라”고 말씀한다.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네 고품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라고 경고하신다. 이처럼 안식년 빚 탕감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빈민 대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신 15:7), ‘악한 생각’(신 15:9), ‘악한 눈’(신 15:9), ‘죄’(신 15:9)이다. 이 본문에서 죄와 악은 바로 가난한 이웃에게 안식년 빚 탕감을 회피하기 위해 꾸어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죄와 악을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목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간과하기 쉬운데, 죄와 악에는 분명히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사회적 차원이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므로,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와 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와 악이 된다.

신 15:7-10, “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너에게 꾸어주라 9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28

대한민국 영화 관객 순위 1위는 12년 전에 개봉한 영화 임진왜란 중 이순신장군의 해전 ‘명량’이다. 그리고 올해를 뜨겁게 달군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로 오늘 2026년 4월 21일 기준 1,650만 명이 넘어 전체 2위다. ‘왕사’는 한국의 영화감독 장항우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2월 4일 극장에 개봉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가 천만 명이 넘는 영화가 없는 터에 영화계에서는 단비라고 한다. 나는 초창기에 이 영화를 보았고 이렇게까지 히트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많은 인소문에 영화가 천 만을 넘어 한국영화 전체 2위까지 올랐는데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국내 관객 1위와는 100만명 정도가 넘는 상대다. 이 영화는 드라마로 1453년에 일어난 일로 673년 전인 조선시대의 사극이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

렇다.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인해 뒤 흔들린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이홍위, 배우 박지훈)이 왕권을 탐한 수양대군이 일으킨 난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 강원도의 영월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광천골의 총장 엄홍도(배우 유해진)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열 동네의 유배지에서 돌봐준 최수가 잘 복귀하여 큰 상을 내려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보았다. 자기 마을도 기어코 유배지로 만들려는 노력 끝에 사

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왕이었던 이홍위이다. 마을의 총장이었던 엄홍도의 동기가 시작되고 힘이 없고 여리고 흐린 눈빛의 어린 왕을 감시하며 결국 이홍위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 영화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한 가지는 감독의 배우 선정에 녹아있는 진심과 몰입,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가 일품이었다는 것이다. 장항우감독

이 배역에 맞는 배우를 찾기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여러 숏폼의 영상물을 보고 알 수 있었다. 배우들은 감독의 의도대로 충실히 자신의 연기를 쏟아 부었다.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흥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시대의 고민을 폭발시켜 줬다는 점이다. 불의에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민초들의 삶이 작고 약하지만 결국은 이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하고 역사는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 영화의 힘있는 단

종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 활시위를 당긴다. 눈이 살아나고 힘을 내는 것을 보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고 해 낼 수 있는 힘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기를 폐위시키고 죽이려는 수양대군에게 “네 이름 ~” 은 품으로 호통치는 대 목은 이 영화의 백미다. 누구든 억울하고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깨어나는 ‘작은 거인’을 이 영화

를 통해 보았다.

이 영화의 인소문은 북미(미국) 동포들에게 전해지고 개봉했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 흥미롭게 보고 우리의 사극에 푹 빠졌다는 기사를 보고 연기는 언어를 뛰어 넘어 감동을 주는구나 하고 느꼈다. 어쩌면 오랜 무명과도 같았던 장항우 감독의 마음이 이 영화에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다. 인생의 실패는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비로소 끝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한발자국씩 나아가라.



최홍남  
· 한국청소년지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도용품 · 기념품 · 기획상품

### 전도용품

-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항상 기억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100원~200원대)
- 전도 및 심방시 사용 할 수 있는 심방 전도용품

### 기념품&행사용품

- 위임, 임직, 헌당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제품
- 초청장, 식순, 기념패, 기념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마련 할 수 있습니다.
- 성경과 교회가 디자인 된 주일학교 가방 및 전도용 가방
- 고급타올 및 우산, 예배상, 무릎담요

### 기획상품

- 핸드 페인팅 도자기 그릇
- 전통용기찬기
- 아름다운 문양의 공기대접
- 강화유리접시
- 키친아트 파카글라스
- 다양한 그릇, 잡화, 생활용품

(이 모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대경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5-35 (전대 치과대학 맞은편)  
TEL.062)430-5635 FAX.575-5635  
H-P.010-2662-5440

## 건축물 유지보수 외부 · 외벽공사전문

옥외간판 · 십자가 · 외벽 유리청소 · 방수, 페인트

시외 장거리가능 / 건물가치와 수명연장

1톤 · 3톤 · 5톤 굴절스카이 전차종 임대 가능

경미한 공사 환영

건축물외부,외벽공사  
안전장비 고소작업 스카이라와  
전문인력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린텍 손전화 010-3641-0675 김종운집사